

발신 : 경제협력과-S606(2015.4.27)

1. 회의명 : 북극이사회 제9차 각료회의(Nin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Arctic Council)

2. 개최일자/장소 : 15.4.24(금), 캐나다 이칼루잇(Iqaluit)

3. 주관기관 : 북극이사회 의장국(캐나다)

#### 4. 참석자

-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 각료, 상시참여자 5개 원주민그룹(AAC, AIA, GCI, ICC, SC), 12개 공식옵서버 국가 및 잠정옵서버(EU), 2개 옵서버 국제기구, 6개 작업반 대표, 9개 비정부기구 등

\* 회원국별 각료급 참석자

- 의장 : Leona Aglukkaq 캐나다 북극이사회장관(환경장관)
- 캐나다 : Robert Nicholson 외교장관
- 덴마크 : Martin Lidegaard 외교장관
- 핀란드 : Erkki Tuomioja 외교장관
- 아이슬란드 : Gunnar Bragi Sveinsson 외교장관
- 노르웨이 : Børge Brende 외교장관
- 러시아 : Sergei Donskoi 자연자원환경장관
- 미국 : John Kerry 국무장관

#### 5. 핵심요지

- (캐나다의 의장국 활동 평가) 캐나다는 2013-2015 의장국 기간 중 북극의 주인인 북극주민(Northerners)를 최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원주민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전통생활양식 보전 및 활용 모범사례를 모은 사례집(Compendium) 발간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음
  - 북극경제이사회(AEC) 창설은 캐나다 의장국으로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AEC도 북극 거주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임
  - 북극의 기후변화는 북극 주민들이 대면한 가장 큰 문제인 바, 단기 대기오염물질 감축 행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블랙카본과 메탄 배출량을 기록한 인벤토리를 작성하도록 함
  - 북극이사회에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북극이사회에 책임성을 제고함

○ (회원국 각료 및 상시참여자 발언 요지)

- **캐나다** : 캐나다의 북극정책은 모든 정책에서 북극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북극이사회 의장국 수임기간에도 지속됨. 북극이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참여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덴마크** : 북극의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야심찬 목표가 합의되어야 하며,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시장 자유화도 이루어져야 함. 북극이사회는 북극원주민을 포함시키는 포용적 접근을 해야하며, 환경보호와 경제적 발전간 균형을 통해 북극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핀란드** : 기후변화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체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유류 오염 방지 및 해양보전구역(MPA) 네트워크 설립을 촉구함. 북극경제이사회 설립을 평가하며, 옅서버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필요함
- **아이슬란드** : 의장국 캐나다가 특히 원주민들의 정신건강을 강조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 강화되어야 함. 아이슬란드에게 매우 중요한 해양자원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 **노르웨이** : 다른 지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극은 평화를 유지하고 협력을 이루고 있는 것을 평가함. 원주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원주민 인권 보호를 강조함
- **러시아** : 북극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북극의 번영을 위해 양자적, 다자적 협력이 계속되어야 함. 북극개발은 거주민들을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북극의 유류 오염, 기후변화 등을 우려하며, 북극의 개발은 엄격한 환경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스웨덴** : 북극이사회 정치결정에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북극 경제이사회 창설을 환영하며, 북극 개발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미국** : 북극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일부임. 북극이사회가 회원국 뿐만 아니라 상시 참여자 및 옵저버들도 참여하는 전 지구적 포럼이 되었음. 캐나다의 성공적 의장국 활동을 평가함
- **상시참여자** : 원주민들의 참여 강화를 제안하고, 미국의 새로운 의장국 프로그램에 식량 안보(Food Security)와 원주민 주거지(Indigenous Housing)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 **(고위관리회의 보고서 및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 고위관리회의(SAO) 보고서를 채택하고, 북극지역사회 유지(Sustaining Arctic Communities), 북극의 환경보호(Protecting the Unique Arctic Environment), 북극이사회 강화(Building a Stronger Arctic Council) 등의 내용을 담은 각료 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명함
- **(미국의 차기 의장국 프로그램 소개)** △기후변화의 영향 대응, △북극해 안전, 안보 및 관리, △북극 주민의 경제 및 생활 여건 개선 등 의장국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블랙카본과 메탄 감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이행 및 국별 인벤토리 제출, 해양 산성화 문제 대응 및 해양보전구역 네트워크 설립, 원주민들의 물, 통신 및 에너지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함

## 6. 관찰 및 평가

- 참석자들은 북극경제이사회 설립, 원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대응 등 캐나다의 의장국 수임 중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기후변화, 해양환경보전 등 환경 이슈를 차기 의장국 프로그램으로 내세운 것을 환영하고, 미국이 북극의 환경문제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 특히, Kerry 장관이 북극을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설명하고, 의장국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큰 기대감을 표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한 듯 라프로프 외교장관이 아니라 Donskoi 환경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발언도 북극의 환경문제 대응을 강조하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임
  - 여타 회원국들도 북극의 평화유지 및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회피함
  - 기자회견 시 우크라이나, 예멘 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나, Kerry 장관은 정치적 사안은 다른 포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북극이사회는 북극문제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고, 우크라이나와 예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미국의 입장을 언급하는데 그침
- 상시 참여자들은 옵서버들에게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지원 메커니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등 옵서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음
- 우리로서는 차기 의장국인 미국과의 구체 협력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작업반 및 Task Force, 고위관리(SAO) 회의 등에서의 과학조사 및 우리 활동 소개 등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아울러 상시참여자와의 협력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 7. 상세 논의 내용

### 1) 각료회의 의제별 주요 논의사항

#### 가. 캐나다의 의장국 활동 성과

- 캐나다는 2013-2015 의장국 기간 중 북극의 주인인 북극주민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음
  - Inuit 출신 장관이 북극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함. 전문가들을 통해 원주민 정신건강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이칼루이트에서 이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함
  -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통지식과 과학적 연구가 결합될 때 가능함. 이를 위해 북극이사회에서 원주민 전통지식 활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원주민들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보전하고 이를 경제적 활동에 이용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생활양식과 현대적 경제활동을 결합한 최선 활용방식을 모은 사례집을 제작함
- 북극경제이사회(AEC : Arctic Economic Council) 설립은 캐나다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임. 북극의 경제적 발전은 북극 거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AEC에 원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태관광 등 원주민들을 위한 산업 개발을 위해 노력함
- 북극의 환경 변화는 북극 주민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북극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함. 기후변화는 북극 주민들이 대면한 가장 큰 문제 인바, 특히, 블랙카본과 메탄 등 단기 대기오염물질 감축 행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은 블랙카본과 메탄 배출량을 기록한 인벤토리를 작성하도록 함
  - 북극 지역 철새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류오염 방지도 중요 활동분야 중 하나였음
- 캐나다는 의장국으로서 북극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강한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북극이사회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
  - 북극이사회 활동에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Arctic Council Tracker를 창설하여 이사회가 책임있는 활동을 하도록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음
- 이러한 활동은 모두 북극 주민들의 이해, 복지, 번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며, 북극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환경 보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 북극의 발전 이익이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회원국별 각료 발언

### ① 캐나다(Nicholson 외교장관)

- 캐나다는 북극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해 2007년 “캐나다 북극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에는 “북극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모든 부처의 모든 정책에서 북극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그 기본계획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북극이사회 의장국 수임기간에도 지속되었음
  - 캐나다는 전국에 걸쳐 확고한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도 북극 주민들의 자치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정책을 유지함. 북극이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참여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북극의 거버넌스는 특별하면서도 매우 취약함
-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극지역(Yukon과 알래스카)에서의 파트너십이 미국 의장국 기간 동안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함

### ② 덴마크(Lideggard 외교장관)

- 북극을 지금까지 계속 평화롭게 유지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북극의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야심찬 목표가 합의되어야 함. 또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시장 자유화도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미국이 차기 의장국 프로그램으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기를 기대함
- 북극 정책은 북극 원주민을 포함시키는 포용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북극이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환경보호와 경제적 발전 간 균형을 통해 북극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덴마크는 북극 장관을 임명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원주민들의 전통적 생활방식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관광, 수자원 개발,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 개발은 모두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개발되어야 함
- 동석한 kaj Leo Johannesen 패로 제도 총리는 미국이 차기 의장국 프로그램으로 북극해 안전 및 안보를 포함시킨 것을 환영하고, 패로 제도는 기후변화에 관한 EU의 2020년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 ③ 핀란드(Tuomioja 외교장관)

- 핀란드는 1991년 북극보전정책을 수립한 이후 북극의 환경 보전을 중시해 왔음. 기후변화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체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유류오염 방지 및 해양보전구역(MPA) 네트워크 설립을 촉구함
- 북극경제이사회 설립을 평가하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위한 자연자원 개발은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가장 좋은 기술로 이루어져야 함
- 2년 전 새로운 옵서버들을 받아들인 이후, 당분간 새로운 옵서버들의 가입을 중단기로 했는데, 잠정옵서버인 EU가 조만간 정식 옵서버가 되기를 기대함. 옵서버의 기여도를 평가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함

### ④ 아이슬란드(Sveinsson 외교장관)

- 캐나다의 의장국 프로그램은 야심적이고도 실용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북극주민들을 우선시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적절했다고 보며, 특히, 원주민들의 정신건강을 강조한 것을 높이 평가함
  - 북극정책에서 인적자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성평등이 필수적임
- 북극이사회가 북극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새로운 의장국 프로그램은 북극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함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아이슬란드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양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또한, 북극의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절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함.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통신기술의 이용이 필요함
- 북극의 자연보전과 경제적 이용 간 균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북극경제이사회의 역할을 평가함. 북극의 개발을 통해 북극 주민들이 이익을 얻어야 함
  - (내년에) 북극이사회 창설 20주년을 맞아 이익 공유와 적절한 원칙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옵서버들을 포용함으로써 이사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음

### ⑤ 노르웨이(Brende 외교장관)

- 북극의 변화는 북극 이외의 지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극은 평화롭고 지역 협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인 바, 이런 모습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북극경제이사회의 창설과 역할을 축하하며, 북극경제이사회가 책임있는 지역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함
- 새로운 의장국 미국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속시키면서 북극이사회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함. 금년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는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내야 함
- 동석한 Aili Keskitalo Saami 의회 의장은 원주민들을 위한 자금지원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원주민들이 모든 북극 활동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원주민 이사회 사무국의 트롬소 이전을 환영함
  - 특히, 자원개발이 원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원주민들의 자유로운 동의(컨센서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주민 인권 보호를 강조함

#### ⑥ 러시아(Donskoi 자연자원환경장관)

- 무슨 일이 있어도 북극이사회가 확고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축하할만한 일임. 북극의 번영을 위해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이 계속되어야 함. 북극이사회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포럼이 갈등과 위협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러시아는 북극의 정치화에 반대함
- 북극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이며, 북극의 개발은 북극 거주민들을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북극의 유류오염, 기후변화 등을 우려하며, 북극의 개발은 엄격한 환경적 기준이 적용될 것을 강조함
  - 기후 변화는 북극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러시아는 블랙카본과 메탄에 관한 인벤토리를 준비 중임
- 북극의 환경 보전과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백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임. 특히, 지구환경기금(GEF)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이 유용하며, 기후변화 2020 프로그램, 순록 목자들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 바 있음
- 러시아는 북극경제이사회 창설 선도국이었음. 북극이사회 옵서버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함. 미국의 의장국 프로그램이 북극의 환경보전을 강조하고 있음을 평가함

#### ⑦ 스웨덴(Persson 노르딕 협력 장관)

- 북극이사회가 북극 관련 가장 중요한 정치적 포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북극의 4백만 거주민들의 삶이 이사회에 결정에 달려 있음을 환기함
  - 북극이사회에 정치적 결정에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 북극경제이사회 창설을 환영하며, 북극의 개발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북극의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구 온도상승 2℃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COP21에서 구속력 있는 목표 설정을 촉구함
  - 해양보전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환영하며, 지역해 보전 이니셔티브를 지지함. 또한, 블랙카본과 메탄 저감을 위한 활동 프레임워크 이행을 지지함
  - 스웨덴은 북극 관련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유하고자 함. 5.19-20 워싱턴에서 북극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북극이사회 활동은 (현재와 같은 갈등의 시기에) 협력적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함. 비북극권 국가들도 북극이사회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EU가 강력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함

#### ⑧ 미국(Kerry 국무장관)

- 북극이사회는 지난 20년간 활동으로 강한 기반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국을 맡게 되었음. 회원국 뿐만 아니라 상시참여자 및 옵서버들도 참여하여 북극이사회가 전 지구적 포럼이 되었음
- 북극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임. 북극의 환경보전 및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북극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고, Robert Papp을 북극 특별대표로 임명하였음
- 캐나다의 성공적 의장국 활동을 평가하며, 아래 캐나다의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임
  - 상시참여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북극경제이사회를 통해 비즈니스가 북극의 번영에 기여하도록 함. 북극 개발은 원주민들의 생활에 도전이 되고 있는 바, 원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기대함
  - 블랙카본과 메탄 등 단기기후오염물질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유류오염 대응 뿐만 아니라 방지가 필요함
  -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지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 양국 간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함

#### 다. 상시참여자 발언

##### ○ Arctic Athabaskan Council(AAC)

- 캐나다가 의장국 프로그램으로 처음 기후변화 문제를 내세운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함



- 북극이사회와 북극경제이사회의 명칭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AEC가 원주민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다면 존재 의미가 있을 것임. 원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 산업 보로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당부함

○ Aleut International Association(AIA)

- 20년 전 이칼루이트에서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상시참여자로 포함되었는데 북극이사회가 원주민 문제를 다루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동시에 아직도 원주민들의 생활지원 및 전통생활양식 보전 같은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움. 캐나다의 의장국 하 원주민 전통생활양식을 모은 사례집이 발간된 것을 평가함
- 원주민단체 사무국이 북극이사회 사무국과 같이 트롬소로 이전하게 된 것을 환영함. 러시아 거주 원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바, 이들의 적절한 참여방법이 고려되어야 함

○ Gwich' in Council International(GCI)

- 지속가능발전 작업반의 부의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작업반 의장단에 상시참여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

○ Inuit Circumpolar Council(ICC)

- 원주민들은 북극이 원래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가 있음. 변화는 외부에서 온 것임. 북극의 환경은 지구 건강의 척도가 되는 만큼 북극의 환경보전이 중요함. 미국의 의장국 프로그램에 △식량안보와 △원주민 주거지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 Saami Council(SC)

- 사미족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에 걸쳐 살고 있는데, 이들은 근대적인 국경으로 인해 분리되었으나, 고유의 학습방식과 생활방식을 유지하고자 함. 노르웨이 정부가 사미 주거지에 화학품 등 폐기물을 버리려 하고 있어 우려가 됨. 원주민들의 자살을 막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를 공공의료에 포함시켜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함

라. 고위관리회의 보고서 및 각료선언문 채택

- 고위관리회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명함
- 각료선언문은 북극지역사회 유지(Sustaining Arctic Communities), 북극의 환경보호(Protecting the Unique Arctic Environment), 북극이사회 강화(Building a Stronger Arctic Council) 등 세 분야로 구성됨

- 북극경제이사회 창설을 환영하고, 북극 주민들의 건강 및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원주민의 전통 생활양식, 문화, 언어의 중요성을 인정함.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블랙카본과 메탄 저감을 위한 프레임워크 이행을 확인하고, 유류오염 방지 협력 프레임워크를 환영하며, 각국이 극지 해안 유류 및 가스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극지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진전을 환영하며, 전 극지 해양보전구역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승인함
- 상시참여자 사무국을 트롬소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이사회 활동 강화를 위한 상시참여자들과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신규 옵서버 가입은 2017년 각료회의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함

## 마. 미국의 신임 의장국 프로그램 소개(Kerry 국무장관)

### ① 기후변화의 영향 대응

- 북극은 온난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지역으로 북극의 기후변화는 모든 지역에서 실측 가능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기후변화가 북극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환경옵서버 그룹을 강화해 나갈 것임. 또한, Digital elevation map 작성을 지원할 계획임
- 블랙카본과 메탄 등 단기기후오염물질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 블랙카본과 메탄 저감을 위한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해 모든 회원국이 배출현황과 감축 계획을 담은 국가별 인벤토리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COP21 전에 모든 회원국이 높은 수준의 자발적 감축기여 공약(INDCS)을 제출할 것을 기대함

### ② 북극해 안전, 안보 및 관리

-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해양 산성화를 일으키고,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 많이 간과되어 왔음. 옵서버들도 글로벌 해양산성화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를 기대함
- 해양보전구역(MPA)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며, 특히, 극지 MPA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해양프로그램도 만들고자 함. 해양안전과 안보도 중요한 문제임. 해상을 통한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수색 및 구조 관련 협력도 강화하고자 함

### ③ 북극 주민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

- 북극 주민들의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원주민들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며, 통신시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건설도 필요함

- 북극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함. 환북극권 청정에너지 개발 협력도 중점 추진할 예정임. 청정/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제공할 것임
- 미국의 의장국 프로그램은 야심찬 계획이지만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며 시급한 문제들이므로 회원국, 상시참여자, 옵서버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함

## 2) 상시참여자 와 옵서버간 회의

- 4.24(금) 오전 원주민단체 사무국 주관으로 상시참여자들이 “Funding Mechanism for a Better Arctic”을 옵서버들에게 소개하는 회의를 개최함
- 원주민단체들은 “간략하고 투명한” 지원 메커니즘 마련을 목표로 하며, 원주민들을 위한 자금이 직접적으로 특정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원되기를 희망함. 이는 북극 이사회 의 기존 자금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상시참여자의 능력배양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도록 하며, 자금 뿐만 아니라 현물지원도 가능하다고 함
- 옵서버들은 원주민 단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원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원주민 단체가 직접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네델란드 대표는 원주민 지원은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이 일차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원주민 지원은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일본은 ODA가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진국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가능한 기제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북극지역 연구자들과 지역 주민들간 상호교류가 강화되면 서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함. 중국 대표는 2013년 몽골에서 개최된 순록 목자 단체와의 회의 등을 예로 들면서 기존의 원주민 지원 메커니즘을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하였으며, 이태리, 싱가포르, 독일 등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힘

## 3) 북극경제이사회

- 4.24(금) 오후(17:30-18:30) 북극경제이사회(AEC) 회의를 통해 AEC의 목표와 그 동안의 활동을 각료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AEC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함
- AEC는 북극의 경제활성화, 특히, 원주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북극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기준 및 혁신적 방안을 찾고 모범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 2014년 가을 및 2015년 봄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 3월 고위관리회의에 결과를 제출하였음. 2년의 작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5명의 대표가 활동하고 있음. 3개 작업반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업계 및 정부와 40~50번의 회의를 했음
- 6개 중점 분야는 에너지 및 자연자원, 인프라, 관광, 어업 및 수산자원, 인적자원 투자 및 능력 배양, 생활환경 개선 등이며, 시장연계, 민-관 파트너십, 안정적 규율 프레임워크, 산학교류, 북극안전 등 5개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자 함
- 2015-2017년 미국의 의장국 프로그램 관련, 대응체제(response operations), 해양 및 통신 인프라 건설, 에너지 이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수색구조(SAR), 식품 안전성, 오염확산 대응, 선박 트래킹, 해양운송, 에너지 전문가와의 협력 등이 가능함
- 향후 계획은 2015. 4월 신임의장 선출, 2015. 5월 사무국 설립(트롬소), 2015. 11월 이사회 개최, 2016. 3월 작업반 잠정보고서 작성, 2016. 4월 총회, 2016. 11월 작업반 최종 보고서 제출 등임

#### 4) 옵서버 국가 참석 현황

- (중국) Jia Guide 외교부 조역국 심의관, (일본) Kenichi Suganuma 북극대사, (싱가포르) Zainai Arif Mantaha 유럽국장(Alternate Senior Arctic Official), (인도) Sujata Mehta 외교차관, (스페인) Juan Luis Munoz de Laborde 북극고위관리, (영국) Paul Stansfield 남북극정책자문관, (독일) Joern Rosenberg 주캐나다대사관 차석대사, (네덜란드) Lein Buisman 선임정책자문관, (폴란드) Marcin Bosacki 주캐나다대사, (이탈리아) Marco Filippo Tornetta 다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끝.